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⑤ 전북 김제 금산사 보리수나무(보리자나무)

같은 이름 다른 나무, '보리수'

산문에 일주문은 보이지 않고 섬처럼 고립된 듯한 석성이 산비탈을 부여잡고 있다. 올려다보니 개화문 현판이 이승의 삶과 저승의 환상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양탈하는 이에게 묻는다. "무얼 보러 왔는가?" 그래, 나무였지.

포장도로를 가로질러 모악산 물줄기 따라 운명대로 자란 키 큰 참나무, 전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에 홀리다 보니 일주문은 스치듯 지나치고 어디선가 오른쪽 눈을 궁굴리게 하는 노란 불빛이 휙 끼쳐온다. 다시 가로질러 작은 전각 안으로 고개를 밀어넣으니 세월의 소원을 켜켜이 묻힌 돌미륵이 눈동자 없는 시선으로 내 등 너머를 응시한다. 복전함 위 성냥개비로 불이라도 켜고 싶었지만, 등산화 끈 풀 생각에 목례만 하고 급히 숲으로 걷는다.

어릴 적 두려우면서도 손을 모으게 했던 풍경에 움찔한다. 서낭나무인 느티나무 앞에 놓인 막걸리 두 병, 천년의 주목 가지를 열매처럼 뒤덮은 색색의 리본들. 무슨 내용인지 엿보려는데 또 질문이 나온다. "무얼 보러 왔는가?" 매운바람에 흉흉하다. 나무였는지, 나였는지.

시린 걸음으로 금강문, 천왕문, 보제루를 뚫고 나오니 넓은 경내 마당이 수확을 끝낸 겨울 김제평야 같다. 산과 평지의 경계에 부채처럼 펼쳐진 전각 가운데 어느 곳부터 인사해야 할지 눈이 호사를 하는데,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상 드문드문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마음을 선점한다.

둥근 돌로 얕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나무에 다가가니, 원시 지구의 불모지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등공신인 지의류가 땅 위 줄기를 감싸고 있었고, 그 끝자락에 보리수나무 글자가, 그 위로 어두운 회백색을 띠면서 세로로 갈라진 나무껍질이 이따금 지의류를 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연한 색감의 마지막 가지에 갈색 털로 부숭부숭한 겨울눈이 봄빛을 갈망하고 있었다.

허리 숙여 열매를 주워본다. 도토리를 꽉 누른 듯한 넙데데한 흙빛 구슬들에 난 솜털들이 손가락 피부를 까칠하게 한다. 그렇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나무는 배고플 때 맛나게 따먹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우리의 보리수나무도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함께한 상록 교목 무화과나무류인 인도보리수도 아니다. '보리(菩提)'라는 깨달음은 기후라는 장벽을 깨고 열대에서 온대로 넘어왔지만, 열대 식물 인도보리수는 생존이 곤란해 중국에서는 피나무과인 보리자(菩提子)나무에서 깨달음을 보려고 했고, 우리는 자생의 보리수(甫里樹)를 대신해 보리자나무를 보리수나무로 부르고 있다. 부처님의 숭고한 깨달음 앞에서 과학자들이 만든 식물 분류 체계라는 엄격함은 비켜설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우리나라 '보리수'는 보리자나무
피톤치드 우뇌의 명상에 도움



전북 김제 금산사 보리수나무(보리자나무).

광합성을 하는 좌우비대칭의 푸른 잎들이 없는 겨울나무 아래 머물면서 막 상쾌해지지 못 하는 건 혹 피톤치드 양이 줄어서일까? 그래서 보리수나무가 아니라 보리자나무라고 읊조리며 늘 푸른 인도보리수를 그리워하며 그 옆 또 다른 보리수나무로 다가가는 걸까?

〈천년도서관 숲〉을 보면,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수행을 할 때 숲속의 피톤치드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이는 물론 상상의 영역이지만 분명 과학적으로는 있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피톤치드는 좌뇌의 기능을 억제하고 우뇌의 명상을 돕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반에 들도록 무의식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글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사시사철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인도보리수와 늘 함께할 수 없어 과학을 넘어서는 무한의 상상으로 보리수나무를 안고 있으면 깨달음이 좀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과학은 설명이고 종교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다 같은 실재에서 오는 것, 그래서 왕벚나무 꽃이라도 보면 보리수나무 꽃이라도 보면 깨달음 갈구에 면벽하고 싶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준비하는 계절, 나무는 잠시 잊고 진표율사가 766년에 건립했다는 외부 3층 내부 통층 미륵전으로 향한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1장 6척의 미륵장륙삼존불이 압도하며 십선도 하나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을 내리누른다. 금산사 미륵전 홍보영상 '보리의 약속'을 보면, 미륵전은 거울에 비춰보듯 자신을 비추고 비추어보아 자신을 맑게 하는 곳이라는데, 나는 그저 단단한 목재처럼 뻣뻣이 고개를 들고 56억 7천만 년 동안 어떤 행색이든 살아있기를 갈구한다. 그것이 상상 속 환상일지라도 망신참회나 선수행이 어렵게만 해 미륵본존불 왼손의 금빛 보주가 내 입속으로 장애 없이 굴러들어오기를 또 희구하는데, 끝을 모르는 사방에서 다시 또 묻는다. "나무를 보러 왔는가, 나무를 보는 너를 보러 왔는가?"

미륵전을 나와 겨울새에게 먹히지 않은 빨간 열매를 쭈글쭈글하게 달고 있는 산사나무에 예의를 표하고는 다시 보리수나무를 본다. 곧 올 봄이 그대에게는 미륵불 현전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계절마다 찾아와 녹음 무성한 피톤치드 맡으면 내게도 현전삼매가 나타날까? 이승의 성돌 하나가 날아와 내 머리를 친다. 아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⑤ 차창룡의 '나무 물고기'

항상 깨어있으라는 경책 소리, 목어

나무 물고기 / 차창룡

물고기는 죽은 후 나무의 몸을 입어
영원히 물고기 되고
나무는 죽은 후 물고기의 몸을 입어
여의주 입에 물고
창자를 꺼내고 허공을 넣으니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입에 문 여의주 때문에 나무는
날마다 두들겨 맞는다
여의주 뱉으라는 스님의 몽둥이는 꼭
새벽 위통처럼 찾아와 세상을 파괴한다
파괴된 세상은 언제나처럼 멀쩡하다
오늘도 이빨 하나가 부러지고 비늘 하나가
떨어져나갔지만

– 차창룡 시집, 〈나무 물고기〉, 문학과지성사, 2002

해석이 필요 없는 명시다. '나무 물고기'는 '목어(木魚)'를 말한다. 절집에 가면 범종루(梵鐘樓)에 사물(四物)이 걸려 있다.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板)이다. 범종은 큰 종을, 법고는 소가죽으로 만든 큰 북을, 운판은 구름 모양으로 된 철판을 말한다. 목어는 글자 그대로, '나무[木]'로 만든 '물고기[魚]'다. 이 시는 그 목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다. 같은 시집에 실린 차창룡 시인의 다른 시 '선암사 목어'를 보면 목어를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알 수 있다.(좀 긴 산문시이지만, 이보다 더 목어를 잘 설명할 수 없기에 전문을 다 인용한다.)

"어느 날 깨어보니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잉어였다. 물고기인 나는 헤엄을 쳐야 했지만, 커다란 나무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밤에는 눈 감고 잠을 자고 싶었으나, 물고기 눈은 절대로 감을 수가 없었으니,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했으며, 그리하여 늘 참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참선의 공덕으로 등에 솟아난 나무가 내 몸으로 들어왔고,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었다. 거추장스런 내장을 다 치우고 보니 나의 뱃속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장한 허공이 들어찼다. 내 뱃속을 막대기로 두들기면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떴고, 물고기들의 몸에서는 나무가 자라 올랐다. 사람들을 깨우고 물고기를 괴롭히는 것이 하 나는 즐거워, 아침저녁으로 두들겨댄 뱃속의 허공은 자꾸만 깊어만 갔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나의 몸은 바람에 깎이고 세월에게 먹히어 서서히 없어져가고 있었다. 없어져가는 나의 몸속에서는 언제부턴가 새로운 욕심이 새록새록 자라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뱃속에 허공이 들어찼던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龍)이 되는 것이었다. 용이 되기 위해서는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 용문(龍門)이라는 가파른 협곡을 뛰어올라야 했다./ 복숭아꽃 필 무렵 나는 강을 거스르고 거슬러 용문에 다다랐는데, 무려 삼천 번을 시도했으나 말짱 도루묵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나의 비늘이 붉게 물들고 나서야 겨우 용문을 뛰어올라 여의주를 입에 물었다. 나의 머리는 용이 되었으나, 아직 용이 되지 못한 물고기들에게 잠깐 연민의 정을 느낀 탓으로 몸뚱이는 그만 물고기로 남게 되었다. 물고기와 나무와 용의 몸을 한꺼번에 짊어진 나의 몸은 한껏 고달프다. 새벽마다 용울음 소리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눈뜬 물고기들의 새벽잠을 깨워야한다. 나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의 등에는 나무가 솟아오른다./ 어느 날 깨어나보니 나의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붕어였다."

같은 시집에 실린 '선암사 목어'다. 설화(說話)를 배경으로 목어가 세밀화(細密畵)처럼 자세하게,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실제로 목어는 나무로, 잉어 모양의 물고기로 만들어졌다. 목어고(木魚鼓)·어고(魚鼓)·어판(魚板)이라고도 한다.

나무로 된 물고기의 배 부분을 몽땅 파내고 나무막대기로 그 물고기 배의 양쪽 벽을 쳐서 소리를 나게 한다. 중국에서 유래된 이 목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시는 그 두 가지 유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백장청규(百丈淸規)〉에서 나온 유래다. 언제나,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를 조각하고 그것을 침으로써 수행자는 잠의 혼미를 쫓아내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경책의 의미다.

다른 하나는 설화(說話)다. 옛날 한 승려가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옳지 못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 승려는 곧바로 물고기의 과보를 받았는데, 등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서 풍랑이 칠 때마다 그 나무가 흔들려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 스승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그 제자가 물고기로 태어나 고통 받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불쌍히 여긴 스승은 곧바로 수륙재(水陸齋,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을 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를 지내 그 제자를 물고기 몸으로부터 해탈하게 하였다. 스승 덕분에 물고기 몸으로부터 벗어난 그 제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신의 등에 나 있던 나무로 잉어 모양의 물고기를 만들어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끔 했다는 이야기다. 그 형태 또한 처음엔 단순한 물고기 모양이었지만, 점차 용머리에 고기의 몸을 취한 용두어신(龍頭魚身)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용이 되다 말아서인지 대부분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목탁은 이 목어가 변형된 것이다.

차창룡 시인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유래를 바탕으로 이 시를 썼다. 목어의 생김새와 유래를 정말 실감나게, 잘 형상화했다. 특히 이 시의 2연 '창자를 꺼내고 허공을 넣으니/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입에 문 여의주 때문에 나무는/ 날마다 두들겨 맞는다'는 활유는 기막힌 절창이다. 사실 〈나무 물고기〉는 시집 전체가 불교시로 가득 차 있다. 불자나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매우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만날 수 있다.

이제 차창룡 시인을 밝힌다. 그는 '동명(東明)' 스님이다. 2010년 필자와 함께 출가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을 맡고 있다. 세속에 있을 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고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되는 등 유명 문인이었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부처님 조성 비밀 의식의 전수

불복장 작법 및 점안의식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앞장서
2019년 무형문화재 불복장 작법 보존회 139호로 지정된 회원스님들께서
강의를 합니다. 이에 불복장 의식 보존과 전승에 뜻을 둔 학인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2022 수계예정자 가능)

모집일정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년 3월 10일(방문, 이메일, 우편) ※songgang35@daum.net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백양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다운로드)
※http://www.baekyangsa.com
2.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매

모집인원 전수과정(1년) : 00명

수 강 료
1년(2학기 12강) 학기당 30만
교육기간 : 22년 3월 ~ 12월(1년과정)
교육장소 : 백양사 향적전
교육시간 : 2주, 4주차 월요일(오후 2시~ 4시)
강 사 진 : 불복장 작법 보존회 139호
(원로의원 보륜 성오스님. 현함 도성스님)
영산재 번장엄 등 50호(청산스님)

접수 및 문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백양사 종무소
※전화 : 061-392-7502 팩스 : 061-392-2081
※학감스님 : 010-4161-5317

불복장 작법 보존회 현함 도성